

현대사회에서 여성교육의 의의

- 대학교육과 여성교육 -

이 선 재 | 전국여교수연합회장

I. 서론

현대사회는 그 이전 사회와 비교하여 변화의 양상이 급박하고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형태가 계속 출현하였으며 이는 전통적 가치관의 위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낳게 되었다.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급속한 변모와 발전이 인류 생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으나 유독 여성 관련 가치관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견고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영향력을 여전히 발산하고 있다.

현대는 인류역사상 가장 진보된 사회로서 인간성을 존중하고 합리적이며 기능적인 사고방식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박애주의적 사상을 기치로 발을 내딛었지만, 20세기를 지내면서 이러한 것은 환상이었고 물질문명의 폐해와 이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21세기를 맞는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분야는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 가장 큰 것은 지나친 물질과 합리성의 승배로 소외된 인간과 환경의 문제이고 이러한 인간 소외를 부추기는 문화의 흐름이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인간을 배출하지 못하는 교육의 구조이다. 20세기 교육의 목표는 보편적 진리를 소

유한 능력 있고 건전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에서 보편적 진리라고 통용되던 것이 사실은 일부 특정 집단에 의해 옹호되는 보편성이었고, 건전한 인간이란 힘있고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 기여하는 것이며 가장 평등해야 할 교육의 현상이 사실은 정치적 힘을 가진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외와 배타의 핵심에 여성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현대 사회가 여전히 자기 변신과 구조적 재구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교육으로 불릴 수 있는 20세기의 교육 구조는 연령별, 시기별로 개인적 가정사회나 이익사회가 아닌 공적 영역으로서 독특한 공동체적 위치를 가지는 학교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의 담당자나 피교육자는 가정의 사적인 친밀감과 사랑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라는 독특한 구조 아래서 교육적 가치관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제 3의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영역을 보장받으며 후진을 양성할 수 있었다. 학교는 사랑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일정 시기를 거친 것은 개인의 인격과 지성의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지표가 되

“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교육 변혁론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개혁이 시도되고 교육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고 개혁이 주저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여성교육과 여성 진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

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교육의 권위는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실되었으며 학교교육, 또는 공교육의 붕괴라는 교육적 마비 현상이 우리 사회를 휩쓸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공인이 세속적 신분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던 현상에 비해 학교교육 이외의 통로를 통해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기회의 다양성이 부여된 사회적 변모를 감안하더라도 교육의 현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교육 변혁론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개혁이 시도되고 교육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고 개혁이 주저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여성교육과 여성 진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II. 한국 고등교육계에서 여성의 현실

한국 사회는 20세기 근대화의 문호를 열면서 서구적 체제의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고 여성의 교육도 시작되었다. 여성을 공적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성 지위나 의식 개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때 교육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

은 곧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를 얻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1970년대 이후 교육의 기회가 보다 대중화되고 교육 내용도 세분화되자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동안 여학생들의 특성 학문 분야로 여겨졌던 생활과학(가정학), 간호학의 각 전공 영역과 인문·예능 계열의 각 전공 영역에 편중되어 진학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점차로 전공 영역을 확대하여 사회·경상·정법 계열을 위시하여 공학, 의학 등의 전 분야에 걸쳐 남학생과 대등한 조건에서 진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여성 학자들은 선구자적 지위로 학계에 진입할 수 있었으나 경쟁시대가 도래한 만큼 학자들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는 사례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라면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은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가장 기본적 불평등인 성차별의 현실을 당면할 때, 사회적 엘리트로서 좌절감과 여성적 정체감의 혼란 속에서 남보다 더 많은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사실 교육계에서의 여성 차별은 이미 이전에 시작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에 따른 교과서에 의한 교육을 받았고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입할수록 여성에게는 문호가 좁아지는 것이 사실이며, 가장 수준 높은 지성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대학

에서도 여성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다. 남녀공학의 경우라면 당연히 남학생을 먼저 키워 주는 풍토고 취업시에는 여성이라고 배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학이 최대한의 공정성을 베풀어 입학이나 학창시절의 성적을 얻는 데는 남녀 학생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자신이 배출한 학생을 어떤 목적으로 학교에 영입할 때나 다른 직장에 추천할 경우 전공이나 업무에 따라 남녀의 구분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구성을 볼 때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와 비슷해져 가는 추세인데 여교수의 비율은 남자 교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01년 기준 전임강사 이상의 여교수는 전문대학 포함 국·공립대학은 전체 교수의 8.8%이고, 사립대학 16%, 교육대학 17.6%, 산업대학 9.4%에 불과하다. 법대, 경영대, 공대, 농대, 의대에는 여교수의 진출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여학생이 80%가 넘는 일부 학과에도 여교수가 전혀 없어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대학이 학생 지도에 대해 배려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균형과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교수 성비로는 균형 잡힌 대학교육을 이뤄 낼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그나마 몇몇 여자대학교를 위시해서 대학 교내의 생활과학대학이나 간호대학 등 여성 특성 학과의 교수의 숫자 때문에 얻어진 수치로 보인다. 대학의 고용 관행이 여교수를 기피한다는 사실은 악히 알려진 바이며 심지어 어느 여자대학에서는 여교수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학교 출신을 포함한 여교수의 취업을 제한한 사례까지도 있었다. 취업에 제한을 두려면 학생 선발은 왜 했는가.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여교수의 비율도 늘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박사 학위 소지자들의 취업난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급속히 늘어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부족한 데서 기인한 일일겠지만, 여성 박사의 경우는 여성 차별적인 취업 관행과 맞물려 일반적인 고학력자 실업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 박사는 전체 박사 중 22.9%를 차지하고 있는데 '99년도 조사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는 여성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94.4%가 미취업 상태이고 남자는 75.5%였다. 자연계의 경우 여성의 미취업률은 47.4%, 남자는 33%로 여성의 경우가 월등히 높다. 2000년에도 여성 박사가 1,500명이나 배출되었으나 그 중 37%만이 취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확실한 미취업 상태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들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전공의 편중 문제 같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박사의 취업난이야말로 고학력 사회가 노동시장으로부터 밀어낸 지식인이면서 또한 가부장 사회가 밀어낸 지식인의 이중 굴레를 쓰고 있다. 취업에서 여성의 차별은 사회에서 핵심적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일수록 심하며, 그에 비해 주변적이고 영향력 없는 곳에서는 차별이 적어 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직업 체계가 높은 곳은 남성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박사들의 취업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영역 확보라고 보는 것보다 남성 지배적인 핵심 영역에 여성이 진입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 박사의 미취업에 대해 객관적인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한 비합리적인 진로 선택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부여하면서도 고용 시장에서 취업의 기회에서는 성차별의 관행을 고수

“

한국 사회에서는 보다 철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지배하기도 한다.

오늘의 한국 여성은 전통적 성 역할의 굴레와

한정적인 여성의 삶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

하는 사회의 모순적 태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는 크게 열린 문이 취업 현장에서는 다시 닫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 여성은 스스로에게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지식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무력감과 공적 취업의 상태에서 배제되는 소외감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전국여교수연합회에서는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수임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실력과 능력, 이것이 객관화된 지표인 연구 실적이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여성에게도 연구와 학생 지도에 참여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도록 현실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교수 채용목표제는 대학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나 공공기관에도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 박사를 고용하는 기관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책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 내에서 여교수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각 학과나 단대별로 여교수의 비율이 적정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남녀공학의 대학에서 여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녀공학 대학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일부 전공이나 학과의 경우 여교수가 없고 여학생을 위한 강좌나 여성학 협동 과정, 연계 과정이 없는 상황은 여학생을 성차별

적인 무관심에 방치하고 올바른 전공지도나 진로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학에서의 시간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 내에서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 열악한 부분은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교육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여러 분야의 학문이 세분화되었지만 그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여성학의 분야이다. 이것은 학문으로서의 정립과 아울러 역사와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20세기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학은 지난 20여 년 간 여러 다양한 학문과 제휴하여 발전해 왔다. 여성학은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며 새로운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성학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이해도 높여 주며, 남녀에게 주어진 성 역할로 인해 사회가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상호 작용과 공공정책이 결정되었는가 하는 성차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여성학은 1950년대에 새로운 영역의 모색으로 시작되어 여성과 소외된 남성의 재 조명, 억압된 소수민족과 종족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조명, 여성의 시각에서 본 문화의 연구, 기존 학문에 대한 새로운 구조로서의 학문으로서의 도전으로 발전,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학의 분야보다 여성주의적 시각과 가치관이다. 여성학은 사회, 문화 전반에 여성주의적 비평의 관점을 심어 놓았으며 삶의 철학과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많은 부문에서 근대주의적 기준이 인간의 삶의 많은 부문을 외면하고 특히 교육에서 많은 소외계층을 낳았음을 목격했다. 이러한 발전의 추구는 20세기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유사하다. 전통과 단절하여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는 모더니즘은 새로운 작가와 영웅을 부상시켰고 자체의 논리와 질서를 갖추는 중심 영역을 확립했으나 이것은 탈중심주의를 추구하며 다양성을 실현하는 포스트모던의 패러다임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메타(metha)서사의 로그스 중심의 사고 방식은 여성성의 유연함과 감성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고 서구 중심의 이성주의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게 된다. 서구 중심의 사회는 지구촌의 사회로 변모하게 되고 모더니즘의 문명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에 부심하게 되는데 새로운 자유주의와 탈가부장주의, 탈서구주의, 탈산업주의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여성주의와 동양주의, 자연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인데 생명철학과 여성주의를 통합하는 변혁주의적 교육철학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지구화 추세는 정보화 사회가 주도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새로운 경쟁사회의 무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숙달보다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현재의 지구화 시대에서 최고로 요구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생태적인 창의력이다.

정보화 시대 사고를 연구하는 철학자 레비(Levi)

는 이를 지구 정신, 또는 세계의 두뇌로 불렀고 이를 기르는 것이 인류의 과제라고 말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창의력은 열린 사고의 수평주의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는 여성주의적 교육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적극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창의력을 고무하며 탈가부장제적 성 평등의 교육인 것이다.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근대 교육이 아닌 근대 문명을 넘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사회에서는 중심에 남성과 권력, 지배가 존재했으므로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에는 여성과 화합과 공존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렇듯 미래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적 의의와 중요성은 미래 학자에 의해 현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등 이념을 추구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성적 불평등이 이뤄지고 성적 차별을 재생산해 내는 것을 보아 왔다. 성차별이 한쪽 성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성적 정체성을 확인하여 성적 능력에 따른 최대치의 성과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교육과 시각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 본다. 이것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생산해 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다 철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지배하기도 한다. 오늘의 한국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의 굴레와 한정적인 여성의 삶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공적, 사적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문화로 대중문화가 구성되었으며 외래문화에 대한 맹신과 숭상은 사대주의적 문화관을 가지게 되었고 전통의 권위는 위축되었다. 전통문화가 대

중문화로서 주체성을 행사하지 못하자 관료중심주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늘날 한국인의 생활 태도는 전통과 수용된 외래 문명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과 근대적 가치관의 타당성 있는 통합을 이루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대응하는 것이며 이것을 실천할 변혁의 주체가 여성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여성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 문화의 가치관이 여성의 문화적 자아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되어야 한다. 여성적 이해가 결여된 인간적이라는 개념을 여성성을 보완시켜 완전한 인간성의 이해로 완성시켜야 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한국 문화를 보편적 지구적 에토스(ethos)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세계 문명 안에서 한국 문명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세계화에 능동적 참여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대학은 새로운 가치관과 조직을 정비하고 열린 시스템으로 평등과 자유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는 오늘날, 한국의 여성 교육은 미래를 위한 대안교육의 기획과 실천을 담당하고 국가적으로는 민족문화를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수립하여 후세에 전해 주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제 여성교육이 여성을 계도하고 여성의 발전을 지향하는 시기는 지났다. 위기에 선 현대 문명과 모더니즘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참된 인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 교육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다. **문익**

이선재

숙명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가정관리 석사, 세종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가정대 의류학과 교수로 숙명여대 학생처장, 가정대 학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숙명여대 대학원장 및 전국여교수연합회 회장으로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의류학개론」, 「패션머천다이징」 등이 있다.

